

하천 강씨집안이우다.
 바르연변에 큰 솟이
 혼나 올라와시난
 봉가단
 두 일뢰 열나흘
 불을 숨아도
 물이 누시 괴질 아니 혼난
 괴팡데레 갖다놓았수다.
 혼룻밤은 꿈에 선몽 혼길
 “나는 수주용궁에서 오라시니
 잘 우양 혼민
 되로, 말로 분급 혼영
 부제로 맹글아 주키여.”
 혼난,
 매양, 큰 일에
 잘 우양 혼였수다.
 그영 혼난
 주손엔 서귀진 조방장,
 정의원, 대정원, 멩월만호,
 응 큰 배실이 나고
 가문이 영창 혼였수다.
 대왕청을 청 혼민
 군웅일월로 놓네다.

<성산면 신풍리 여무 64세 홍매화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695.